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장 '여건 최적'

뛰어난 접근성·높은 집중도 관객 몰린 주변상가 '대목' 임시주차장 등 배려도 호평

제17회 전북 전주국제영화제가 열흘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가운데 야외상영장인 개막식 장소가 뛰어난 접근성, 높은 집중도 등 역대 최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전주, 봄의 영화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건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이 고사동에 위치한 옥토 CGV 주차장 내에서 4000여명의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봄비가 내린 이후여서 비교적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은 자리를 지키며 레드카펫과 개막행사, 개막 상영작을 관람하는 등 여느 영화제 때보다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이는 개막식 장소가 도시의 중심부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상영관이 밀집해 있는 '영화의 거리'에 위치해 영화제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개막식이 열렸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은 영화와 관련성이 적어다 교통이 불편했고 행사장 규모가 너무 커서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지적을 받았던 전주종합경기장의 평가와 대조를 보였다.

특히 주변 상인들이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영화의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 위한 차량 통제와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하면서 시민이 몰리고 상권이 살아나는 효과를 얻기도 했다.

실제로 영화의 거리 주변 상가들은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대목을 만났다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또 영화제 기간 차량 통제로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없었다.

전주시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주국제영화제를 앞두고 실시한 대대적인 교통정책이 시민과 관람객을 큰 불편 없이 영화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전주초등학교와 성암교회 등에 임시주차장을 운영해 자가 운전 시민과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했다.

전주국제영화제를 찾은 김찬식(36·경기도 오산) 씨는 "폭립영화를 매우 좋아해 매년 전주국제영화제를 찾고 있다"면서 "개막행사장 등 과거의 영화제 개최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모습

장소 보다 집중도가 높아 영화제를 맘껏 즐기기에 충분하다고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영화제 개막 상영작을 감상하는 관람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에 대한 칭찬도 쏟아졌다.

개막식 전날인 28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내린 비로 추운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관람객들에게 무릎담요 3000장을 신속히 준비해 제공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하고 황사로 인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5월 초순보다 5월 중순 이후로 영화제 개최시기를 근본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해은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2016 4.28~5.7

이 영화로 가족과 소통·교감하세요

전주국제영화제는 따뜻한 시선과 이해로 가족 간에 서로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영화도 마련했다.

▲하이다-일랭 그스퍼너, 독일·스위스 2015

동화 작가 요한나 슈퍼리의 유명 아동소설 '하이다'를 영화로 옮긴 작품으로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의 정과 친구들과 사이의 우정을 골자로 했다.

영화의 모티프는 도시와 자연의 대비이다.

각박한 도시에 갇힌 클라리의 병증은 대자연의 아이 하이다로 인해 서서히 치유된다.

스위스 알프스의 수려한 풍경이 압권이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영화다.

-전주국제영화제정병원 프로그래머

▲부모님과 이혼하는 방법-제이슨 베이트먼 미국, 2015

동명의 유명한 원작 소설을 영화로 옮긴 '부모님과 이혼하는 방법'(원제:패밀리



제이슨 베이트먼의 <부모님과 이혼하는 방법>

리 팽)은 성인인 된 팽 남매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애니와 버스터 팽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위예술가를 부모로 둔 남매이다. 부모의 실종으로 고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던 두 남매는 가족과 예술 사이에서 운명적 선택을 마주한다.

가족과 인생 그리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초상을 흥미진진하게 담아낸다.

니콜 키드먼을 비롯한 배우들의 원숙한 연기도 영화의 흥미를 더한다.

-전주국제영화제 이상용 프로그래머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했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톨스토이(안나 카레니나)중

/정해은 기자

한지산업지원센터 내일

전주한지 전통계승 세미나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오는 5월 3일 오후 2시 전당 4층 세미나실에서 전주한지 전통계승 및 세계화를 주제로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에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한지장인, 교수, 연구원을 비롯한 한지전문가와 한지제작·유통·판매 관련 종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전주 한지의 실태와 문제점을 논의한다. 포럼은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형태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임현아 한지산업지원센터 연구개발실장 전주 한지산업 실태와 문제점, 장세길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주 한지산업 발전방향 제언을 김은미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전주한지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국가중요 무형문화재 한지장 홍춘수 청웅전통한지 대표를 비롯 안치용 충북도지정 한지장 김준호 문경전통한지 대표, 최영재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백철희 고감한지(페이퍼) 대표, 조현진 조현진한지연구소 대표, 김화정 FIA대표, 김경기 천년전주한지포럼 대표가 각각 토론에 나선다.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전주 한지의 전통적 가치를 구축한은 물론 한지산업을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이끌어간다는 복안이다.

/정해은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5월 2일>



▷쥐띠

48년생: 몸의 컨디션이 좋지 못한 운이니 무리는 금물.
60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으나 후반에는 좋은 일이 생기니 마음을 잘 조절하라.
72년생: 인덕이 따르는 운.
84년생: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은 지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소띠

49년생: 손재수가 따르니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고 실물수를 주의하라.
61년생: 하고자 하는 일을 활발적으로 처리하라.
73년생: 평소 익숙했던 것이라도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운이니 주의하라.
85년생: 작은 일은 성취 가능하니 조심스럽게 진행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호랑이띠

50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충돌이 발생하는 운.
62년생: 사고수가 있으니 위험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74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찍 움직이고 지나친 욕심은 금물임을 명심하라.
86년생: 신체적 컨디션이 좋지 않은 운이니 무리한 운동과 활동은 피하라.



▷토끼띠

51년생: 문서로 인한 금전 지출은 줄이나 다른 투자나 투기는 삼가는 것이 좋은 운.
63년생: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일이 생긴다.
75년생: 금전적으로 이득이 따르는 운.
8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구슬수가 따르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용띠

52년생: 아랫사람에게 경사가 따르는 운이다.
64년생: 먼저 베풀고 진행하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76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니 김정에 빠져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88년생: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마라. 상대와 반목할 뿐이다.



▷뱀띠

53년생: 타인과의 화합에 좋은 운이다.
65년생: 순간적인 판단으로 인해 금전 손실이 따른다.
77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조심하라.
89년생: 타인과의 화합이 잘 되는 운이다.



▷말띠

54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니 투기는 삼가라.
66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니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78년생: 어려운 일이 있다면 자존심을 버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
90년생: 미뤄왔던 공부를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운이니 적극적으로 시작.



▷양띠

55년생: 문수에 맞지 않는 욕심은 화를 부르니 주의하라.
67년생: 사소한 일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생기니 마음을 다스리고 충돌하지 말아야 하겠다.
79년생: 무리한 투지는 금하고 때를 기다려라.
91년생: 어려움이 있을때는 손윗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원숭이띠

55년생: 손이래 사람에게 도움 받을 일이 생긴다.
6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중간 중간 막히는 일이 발생하니 밤성은 금물이다.
80년생: 좋은 일하고 빨 맞는 격, 나사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92년생: 건강이 좋지 않은 운이니 원형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닭띠

57년생: 시비가 따르니 불필요한 언쟁은 피하라.
69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이득을 얻게 되니 커피리도 대접하라.
81년생: 미뤄왔던 문서 정리나 문서를 주고받기에 좋은 운이다.
93년생: 정신이 맑지 않은 운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를 범할 수 있다.



▷개띠

48년생: 내실을 다지는 것에 신경 써라.
59년생: 지출이 심해지는 운이다.
70년생: 모든 일을 혼자서 감내해야 하니 좋은 결실을 맺는다.
82년생: 이성과 함께 일을 도모하기에는 좋으나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돼지띠

47년생: 가족들의 불화가 생기는 때.
58년생: 받으려고 하지 말고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긴다.
71년생: 여성은 다른 사람과 동행하거나 일찍 귀가하는 것이 상책이다.
83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남성은 일로 인해 힘들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라.